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 2026-11-09 (월요일)

[오늘의 한 줄]

주말 사이 미국에서는 급락했던 반도체주가 반등(반도체지수 +4.2%)했고 오늘 일본(+2.3%)과 대만(+4.9%)도 크게 올랐지만, 코스피는 장중 2%대 반등을 지키지 못하고 -0.81%(5,018.85)로 밀려 '5천피'를 간신히 지켰습니다. 외국인 매도를 받아낼 매수 주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미국 신용시장에서는 은행들이 AI 관련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로이터)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 한국 시장 (11/9 정규장 마감, 오후 3시 30분)

- 코스피 5,018.85 (-40.84, -0.81%). 0.5% 하락 출발 뒤 오전 11시 34분 5,172.94(+2.24%)까지 반등했지만 오후에 밀려 하락 전환했습니다. 6월 22일 연중 고점(9,114.55) 대비 -44.9%, 9월 23일 하반기 고점(7,080.92) 대비 -29.1%입니다. [계산]
- 코스닥 638.97 (-0.82%).
- 삼성전자 189,900원 (+0.64%). SK하이닉스 113만6천원 (+0.35%). 삼성전기 84만3천원 (-3.10%).
- 전력기기 3종 연속 하락: 효성중공업 154만9천원 (-1.78%), LS일렉트릭 111,700원 (-4.12%), HD현대일렉트릭 356,000원 (-2.86%).
- 대조: 같은 날 일본 니케이225 +2.33%, 대만 가권지수 +4.94%. 11/5~6 이틀 낙폭은 코스피 -10.98%로 니케이(-7.64%)와 가권(-7.56%)보다 컸는데 반등은 한국만 실패했습니다.
- 왜 못 올랐나: (1) 반도체 투심 미회복, (2) 수급 공백 - 손실 구간의 개인은 매수 여력이 줄었고 국민연금도 리밸런싱 유예 이후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 (3)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제외한 3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40.3%로 둔화(전체는 +352.7%, 신한투자증권 집계)해 반도체 밖에 살 업종이 마땅치 않다는 점.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9098700008

■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

- 코스피: 외국인 -6,889억원(7거래일 연속 순매도, 다만 1~3조원대였던 지난주보다 강도 약화), 개인 -4,889억원, 기관 +7,171억원(금융투자 +1조1,113억, 사모 -2,367억, 연기금등 -1,523억).
- 누적(9/23부터 30거래일,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 근사치):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9.5조원, 코스닥 약 1.41조원. [계산]
- ※ 수급 수치는 집계 시점에 따라 기사마다 다릅니다(위 표는 15:35 기준).

출처: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9116700008

■ 미국 시장 (11/6 금요일 마감)

- 반등: 나스닥 24,579.43 (+1.09%), S&P500 7,376.86 (+0.31%), 다우 51,285.73 (-0.46%). 반도체지수(SOX) +4.21%(9,390.25)로 전날 -12.25% 폭락의 일부를 만회했습니다(전날 낙폭은 2020년 이후 최악).
- 개별: 인텔 +7%, AMD +11%, 마이크론 +5.12%(690달러), 샌디스크 +3.55%, 엔비디아 +2.78%, 코어위브 +6.28%. 아이온큐 +23.42%(32.62달러), 팔란티어 +3.48%(160.38달러). 아마존은 -0.35%(259.30달러)로 반등 대열에 끼지 못했습니다.
- 앤트로픽 IPO(시장의 다음 시험대): 투자자들이 논의하는 적정 가치가 1.2~1.3조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10월 초 2조 달러 → 10월 말 1.4~1.5조 달러 → 현재). 목요일 나스닥100 -6.4%(시총 2.3조 달러 증발, 하루 기준 사상 최대)가 결정타였습니다. 정식 마케팅(북빌딩)은 이번 주 시작, FT는 추수감사절(11/26) 전 완료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 미국 선물(밤 9시경, 진행 중): 나스닥100 선물 27,203.75 (+0.44%).
출처: 야후 파이낸스 https://finance.yahoo.com/markets/article/nvidia-amd-micron-sandsik-lead-chip-sector-higher-134336542.html, 블룸버그(머니컨트롤) https://www.moneycontrol.com/world/anthropic-ipo-buyers-see-valuation-down-as-low-as-1-2-trillion-article-14073758.html, 연합뉴스

■ 돈줄의 향방: 은행이 움찔했다

- 로이터(11/9): 은행과 신용 투자자들이 AI 관련 부채 딜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몇 주 전만 해도 AI 딜에 돈을 대려 줄을 섰던 일부 은행이 이제는 앤트로픽·구글 같은 간판 기업이 보증하는 딜에도 추가 대출을 꺼린다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화는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 ING의 데이터센터 대출 매각(11/6 첫 보도)의 세부가 확인됐습니다: 12건 약 5억 달러를 경쟁입찰(bids-wanted-in-competition)로 매각하며 입찰 마감은 11/19, 최소 입찰 단위 1,000만 달러. 포트폴리오에 밴티지·사이러스원 등의 대출과 뉴멕시코 '스타게이트'(OpenAI·소프트뱅크·오라클) 관련 2,500만 달러 대출이 포함됐습니다(블룸버그).
- 이 보도들이 함께 인용하는 '오라클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는 9월 24일 뉴멕시코 프로젝트(전력 지연) 건으로, 새로 나온 사건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재조명입니다.
- SK하이닉스: 다롄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수출 허가 문제로 뉴욕주 공장 계획도 차질이라는 로이터 단독 보도(11/3)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다는 보도(11/8)가 나왔습니다. 회사의 실적 전망 변경 공시는 아직 없습니다.
출처: 로이터(인베스팅닷컴)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banks-investors-grow-wary-of-ai-debt-spooked-by-marketselloff-5011246, 롱브리지(월스트리트cn) https://longbridge.com/en/news/304713724, 로이터 https://www.reuters.com/5f374b32b07b/world/china/sk-hynixs-new-york-chip-plans-hit-snag-over-us-restrictions-china-sources-say-2026-11-03/

■ 채권·환율·원자재

- 미 국채(11/6 확정): 3개월물 4.19%, 2년물 4.51%, 10년물 4.86%(+0.02%p), 30년물 5.26%. 2년-10년 금리차 +0.35%p. [계산]
- 한국 국고채 3년 3.634% (+0.012%p). 일본 국채 30년 3.855% (+0.036%p, 진행 중 값).
- 원화: 밤 9시경 1,345.8원 부근(진행 중 값, 지난 금요일 마감 1,356.6원 대비 원화 강세).
- 원유: 트럼프가 일요일 "협상이 진전되는 한 이란 추가 공격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하면서 하락. 브렌트 97.57달러(-0.75%, GMT 10:11)에서 밤 9시경 94.90달러(-3.5%, 진행 중)까지 밀렸습니다. 지난주 브렌트는 -16%로 코로나 초기 이후 최악의 한 주였습니다. 변수: 후티가 일요일 사우디 아람코 리야드 사무실 공격을 주장,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키리시 정유소를 타격(월요일). JP모건은 10월 공급 초과를 하루 140만 배럴로 추정했습니다.
- 금 온스당 4,118달러 (+1.1%, 진행 중).
- 미국 항공유·경유(EIA 현물): 최신 확정값은 여전히 11/3 - 항공유 갤런당 4.198달러, 경유 4.823달러. 11/4 이후 값은 아직 미게시.
출처: CNBC https://www.cnbc.com/2026/11/09/oil-falls-as-trump-says-new-iran-attacks-unlikely.html, 미 재무부 일일 금리표, 네이버증권, 인베스팅닷컴

■ AI 가격 신호 3종 (11/6 미국 마감 기준)

왜 보는가: AI 투자 붐의 균열은 지수 전체보다 '빌려 쓰는 쪽'과 '반도체'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세 가지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잽니다.
1. 반도체 대 지수 괴리: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SOX) -25.31%, 나스닥 -10.18%. 괴리 -15.13%p로 금요일(-18.03%p)보다 좁혀졌습니다. [계산]
2. 빅4 대 취약 사업자: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MS·아마존·메타·구글) 평균 -16.01% (MS -4.5%, 아마존 -8.7%, 메타 -21.5%, 구글 -29.3%), 취약 3사(오라클·코어위브·블루아울) 평균 -46.54% (오라클 -53.2%, 코어위브 -64.0%, 블루아울 -22.4%). [계산]
3. 나스닥 고점 대비 -10.94% (전날 -11.90%, 조정장 경계선 부근). [계산]

[판단]

- 기조: '위험 회피' 유지. 주가는 금요일에 기술적 반등을 했지만, 신용 쪽의 나쁜 소식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 은행들이 간판 기업 보증 딜조차 꺼리기 시작했다는 로이터 보도와 ING 매각의 세부(스타게이트 관련 대출 포함)가 그것입니다. 한국이 일본·대만과 달리 반등에 실패한 것은 외국인 매도를 받을 국내 매수 주체(개인·연기금)의 여력 문제라, 외국인 매도가 멈춰도 반등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앤트로픽 북빌딩(목표 가치 1.2~1.3조 달러로 하향)이 심리의 분수령입니다.
- 판단이 바뀌는 조건: (1) 앤트로픽 IPO의 완판과 상장 후 안정, (2) SOX-나스닥 20일 괴리의 -5%p 이내 축소와 외국인 순매수 재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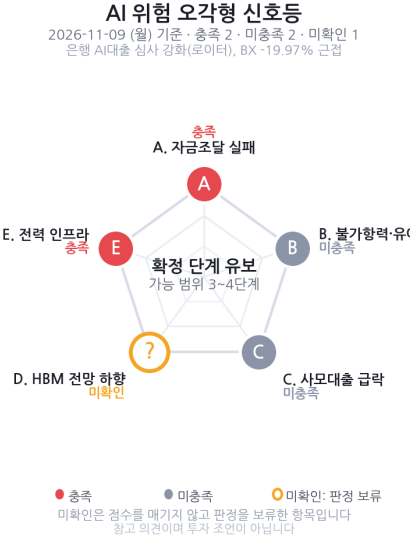
은행의 AI 대출 태도 변화가 '일시적 신중'인지 '한파'인지 확인(11/19 ING 입찰 결과가 첫 시험).
- 오늘의 새 판단 기록: "코스피 종가가 5,018.85 아래일 것" - T+1(11/10, 화)과 T+5(11/16, 월)에 각각 검증합니다.

[복기]

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
- 11/6 판단: "코스피 종가가 5,059.69 아래일 것" (T+1, 11/9 검증) → 실제 종가 5,018.85. 적중.
- 11/2 판단: "코스피 종가가 5,859.08 아래일 것" (T+5, 11/9 검증) → 실제 종가 5,018.85. 적중.
- 해석: 이번 하락 국면에서 방향 예상은 계속 들어맞고 있습니다. 검증이 끝난 최근 23건 중 적중은 13건입니다. 적중이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지 않으며,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적인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둡니다.

[AI 위험 v1]

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



- A.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철회 (최근 30일 2건 이상): 충족 (유지·확대) - 기존 사례들에 더해, 은행들이 앤트로픽·구글 보증 딜조차 추가 대출을 꺼리기 시작했다는 로이터 보도(11/9), ING의 5억 달러 데이터센터 대출 경쟁입찰(마감 11/19), 앤트로픽 IPO 목표 가치의 1.2~1.3조 달러 하향(10월 초 2조 대비)이 확인됐습니다.
- B.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통보 또는 지급 유예: 미충족 - 주말 보도들이 인용한 오라클 불가항력 통보는 9월 24일 뉴멕시코 건(전력 지연)으로 30일 창 밖의 기존 사건입니다. 신규 통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C. 사모대출 운용 3사(APO·KKR·BX)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20% 이하: 미충족 - APO -18.7%, KKR -16.3%, BX -19.97% (11/6 종가). BX가 0.03%p 차이로 기준에 닿지 않았습니다. [계산]
- D. 엔비디아 또는 삼성·SK의 HBM(고대역폭 메모리,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 실적 전망 하향: 미확인 - 하향 공시가 없습니다. SK하이닉스 다렌 장비 허가 문제는 한미 정부 간 협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 E. 전력 인프라 4종(GEV·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30% 이하: 충족 (유지) - GE버노바 -34.1%, HD현대일렉트릭 -73.9%, 효성중공업 -64.3%, LS일렉트릭 -63.3%. 4종 전부 기준 아래(한국 3종 11/9 마감, GEV 11/6 마감 기준). [계산]
- 종합: 충족 조건은 A와 E 2개('3단계' 해당).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가능 범위 3~4단계).
-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끝)